

## 대중 가요의 음악적 요소와 신나는 감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usical elements and exciting sensibility of popular music

김 보 경, 이 승 연  
상명대학교 뮤직테크놀로지

Bo-Kyung Kim, Seungyon-Seny Lee  
Sangmyung Univ.

#### 요약

대중음악에서의 가사는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감성 표현으로 음악 요소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상태에 따라 음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이러한 선택은 음악의 선호도와 유행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신나는 이라는 감성을 중심으로 가사와 템포, 조성, 화성진행, 전조 등의 음악 요소를 분석하고 감정에 따른 가사와 음악요소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음악과 인간의 감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 I. 서론

음원 사이트 엠넷에서 추천하는 감성테마 200곡의 가사와 음악적 요소를 연구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통하여 신나는 감성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고 음악과 감정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 II. 본론

### 1. 감성과 음악

음악은 모든 영역에 존재하며 인간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음악은 가사를 비롯하여 많은 음악적인 요소로 인간의 다양하고 미묘한 감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음악적 요소의 성격에 따라서 인간에게 유발하는 감성이 다르다.

### 2. 신나는 감성테마 200곡 가사 분석

#### 2.1 1차 분류 : 모든 형용사 분류

가사에서 사용된 노래말에 있는 한국어 형용사 전체를 추출한다. 모든 형용사를 추출한 결과 신나는 감성테마 200곡에서 가장 많이 쓰인 형용사는 좋디이며 이 단어의 사용은 190회 이상이었다.

#### 2.2 2차 분류 : 감정 단어의 분류

모든 형용사에서 감정 형용사, 명사, 동사 및 동명사

등을 추출하고 은유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단어를 재추출하여 가사에서 쓰인 감정 단어들을 재분류한다. 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감정 형용사는 좋디이며 180회 사용되었고 감정 명사는 아픔이 19회, 감정 동사는 울다가 48회, 감정적인 은유 표현으로는 달콤하다가 46회였다. 감정단어에 따른 곡의 감정 분석을 하면 긍정의 곡이 92곡, 부정의 곡이 86곡, 감정단어의 횟수가 동등이라 동등으로 분류되는 곡 14곡, 감정 단어 없음이 8곡 이었다.

#### 2.3 3차 분류 : 바람이나 소망적 의미의 감정분류

바람이나 소망적 의미의 감정분류 바라다, 원하다, 기다리다, ~싶은 등의 소망의 표현 단어는 가사 문맥의 앞뒤 상황을 고려해서 감정을 판단하고 2차 감정 단어와 합산 집계한다. 집계 결과 긍정 101곡, 부정 88곡, 동등 9곡, 없음 2곡이었다.

#### 2.4 4차 분류 : 가사 내용과 문맥상의 분류

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곡의 감정을 결정 짓는 단계로 긍정 118곡, 슬픈 82곡으로 집계되었다.

#### 2.5 5차 분류 : 감정 단어 분류에 따른 감정 군집

신나는 감성테마 200곡에서 사용된 모든 감정 단어를 정리하면 기쁨, 흥분 슬픔, 분노 네 가지 감정군집으로 나뉘며 감정군집에 따라 곡을 분류하면 기쁨 91곡, 흥분 27곡, 슬픔 55곡, 분노 27곡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3. 신나는 감성테마 200곡의 음악과 감정의 상관관계

신나는 감성테마의 200곡의 음악요소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템포를 감정군집에 따라 나누면 긍정적인 곡보다 부정적인 곡에서 조금 더 빠른 빠르기에서의 사용이 많았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확인한 차이는 크지 않았고 감정과의 상관관계를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신나는 감성테마의 조성을 분석하면 크게 감정군집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었을 때 기쁘고 행복한 감정 일수록 장조의 쓰임이 단조보다 훨씬 많았고 부정적인 감정 일 때에는 긍정적인 감정에서 나타난 장 단조의 차이만큼 확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단조의 비율이 높았다.

신나는 감성테마 200곡에서 각 감정군집에 따라 분류된 기쁨, 흥분, 슬픔, 분노에서는 다른 감정군집에서보다 많이 사용된 화성진행에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감정에서 사용된 특징적인 패턴이 다른 감정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신나는 감성테마 200곡에서 가장 많은 장르는 락, 댄스, 일렉트로니카 인데 락과 댄스 장르의 음악요소에 따른 긍정/부정 감정의 명확한 분류와 관계성을 연관 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긍정과 부정의 두 감정을 분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르라는 음악적 요소는 락과 댄스 두 장르는 모두 130~149BPM 위주의 빠른 템포에 의해 감상자로 하여금 음악이라는 외부 자극에 의해 느낄 수 있는 신나는 감성을 유발 하는 것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전조는 가장 많이 사용된 기쁨 감정군집을 보면 전조가 총 17번 사용되었고 엔딩 전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엔딩 전조는 대체적으로 단2도 상행하는 형태가 많으며, 전조되는 조성이 하행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코러스 전조와 인트로 전조는 엔딩전조처럼 단 2도, 장 2도 상행하여 곡의 후반부에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곡의 단조로움을 깨고 변화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장조에서 단조로 전조하거나, 단조에서 장조로 전조하는 형태 혹은 같은 장·단조로 전조를 하더라도 도약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장조에서 단조로 조성을 바꾸어 변화를 주었을 때 단조에서 장조로의 변화는 소리의 물리적인 본질에 있어서 단조보다 더 안정적인 장조로의 전환으로 감상자로 하여금 단조 특성상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 할 수 있다.

### III. 결론

신나는 감성테마는 락과 댄스의 130~149BPM의 빠른 빠르기의 음악이 주를 이루고 좋다 라는 감정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 하였으며 긍정적인 감정 못지않게 부정적

인 감정이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기쁘고 밝은 감정 일수록 장조의 사용이 많았고 슬프고 어두울수록 단조의 사용이 많았다. 템포는 부정적인 곡이 긍정적인 곡보다

조금 더 빠른 빠르기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크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곡들로 분류해 보았을 때 상반되는 감정에서보다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성 진행들이 몇 가지 존재하였는데 그 화성진행이 반대되는 감정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르 또한 긍정/부정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락과 댄스의 빠른 템포의 강한 리듬감이 음악이라는 외부자극에 의해 인간에게 신나는 감성을 유발 하는 요인이라는 것에는 신나는 감성테마의 95%가 락과 댄스장르라는 것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장단조성은 많은 연구와도 마찬가지로 장조일 때 기쁘고 단조 일 때 슬픈 연구 결과와 본 결과도 같이 한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은 수치로 봤을 때 결과치가 있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단지 템포, 화성진행 등 단 한가지 음악 요소만을 가지고 감정과의 연관성을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다양한 요소 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0~149BPM 업 템포와 감정에 따른 적절한 장단조의 활용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신나는 감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1] 이소정, 장조와 단조를 중심으로 한 음악적 정서 반응에 관한 연구, 2001
- [2] 김수나,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들-장 단조성과 템포를 중심으로, 2001
- [3] Hevner, K. Experimental studies of the elements of expressions i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8, 1936
- [4] Russell, J. A.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0
- [5] Taylor, D. B. Subject Responses to precategorizel Simulative and Scelative Music, Journal of Music Therapy 10, 1973